

스타 작가들 소설을 내 책꽂이에

올해 인기 작가들 신간 잇따라
윤홍길 20년 만의 대하소설
공지영·은희경·하성란 장편
이기호·故 정미경 소설집도

2018년 무술년에는 스타 작가들이 돌아온다. 흥행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인기 작가들이 속속 신간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올해 독서시장에 소설 대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한 해였다. 문학출판계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관련 책들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독자층은 소설을 읽으며 위안을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 판매량 중 소설 점유율이 10.1%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이다.

윤홍길, 성석제, 은희경, 공지영, 이기호, 하성란, 박민규, 정이현, 황정은, 김숨...

이뿐만이 아니다. 독자들을 설레게 하는 작가들이다. '흥행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이들 소설들이 올해 신작을 펴낼 예정이어서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의 기대를 갖게 한다.

'장마'로 유명한 윤홍길 작가는 등단 50주년을 맞아 20년 만의 대하소설 '문신'(5권)을 선보인다. 일제 말기 열강의 이권 다툼으로 격랑에 휩싸인 한반도를 배경으로 분투하는 가족의 이야기다.

능청스러운 입말이 장기간 이야기꾼 성석제는 장편 '왕은 안녕하시다'를 펴낸다. 소설은 조선 숙종시대를 배경으로 왕과의



성석제



공지영



은희경



이기호

형제를 맺은 주인공이 왕을 지키기 위해 펼치는 모험담이다. 이번 작품에서도 작가 특유의 입담이 유감없이 발휘될 거라는 예상이다.

'새의 선물', '마이네리코'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하나의 장르"로 명명될 만큼 소설적 위치를 구축한 은희경 작가는 6년 만에 장편 '빛의 과거'를 발간한다. 1970년대 후반 여자대학의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형식화한 작품으로 동일한 시간 속에서 각기 다른 기억을 지닌 이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공지영 작가는 '도가니'의 배경이 됐던 '무진'을 다시 한번 소설적 배경으로 작품을 낼 예정이다. 부정한 카르텔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해리'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광주대 문예창작과에 재직중인 이기호 소설가도 5년만에 소설집을 발간한다. 제17회 황순원문학상 수상작 '한정희와 나'를 비롯 모두 7편의 소설이 담겼다. 예상치 못한 반전, 시종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는

작가의 장기가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될 거라는 예상이다.

하성란 작가도 오랜만에 장편을 내놓는다. 'A' 이후 8년 만에 '여우 여자', '여덟 번째 아이', '정오의 그림자' 등을 출간한다. '정오의 그림자'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비밀과 진실의 민낯에 관한 작품이다.

'재와 빨강' '식물애호' 등으로 해외에서 주목받는 편혜영 작가의 소설집도 올해 눈여겨볼 만하다. 박민규 작가도 오랜만의 침묵을 깨고 '홀리랜드'로 독자들을 만나며 조경란 작가도 작품집을 낼 예정이다. '달콤한 나의 도시'로 유명한 정이현 작가는 장편 '아무도 죽지 않는 밤'을, 황정은 작가는 '웃는 남자'를 펴낼 계획이다.

김숨 작가의 장편 '떠도는 땅'도 상반기에 출간된다. 일제 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 이주 사건을 모티프로 우리 역사 속 비극적인 시대와 개인의 아픔을 특유의 섬세하고 집요한 시선으로 그린 작품이다.

또한 '소코의 미소'로 제24회 김준성문학상과 허균문학작가상을 수상한 신인 최은영의 소설집도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은 2016년 소설가들이 뽑은 소설 공동 1위에 오르는 등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2017년 현대문학상 수상작가인 김성중은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배경으로 재난을 다룬 장편을 펴낸다.

'82년생 김지영'으로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조남주 작가도 새 작품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사회, 문화 각계 페미니즘 불을 지폈던 작가의 작품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타계한 정미경 작가의 유고 소설집 '새벽까지 희미하게'가 출간된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많은 문학과 독자들과 안타깝게 했던 정미경은 제30회 이상문학상, 제26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자신만의 독특한 소설세계를 개척했던 작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합실로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

최은별 시인, 소설 '시인과 기자의 어느 금요일' 출간

순간의 만남으로 운명론자가 되어 버린 시인과 쓰러진 실연으로 연애의 회의감이 빠진 기자가 어느 날 기차역



대합실에서 조우한다. 시인은 누군가의 시를 읽는 기자가 신경 쓰이고, 기자는 맞은편에 앉은 시인을 마음에 둔다.

우연히 만난 시인과 기자가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 출간됐다.

최은별 시인이 펴낸 '시인과 기자의 어느 금요일'(신아출판사·사진)은 꿈, 추억, 낭만, 운명을 다양한 눈으로 들

여다본다. 소설은 15년 전 겪은 하나의 사건으로 운명론자가 된 여자와 2년 전 최악의 이별을 경험하고 연애에 회의감을 갖게 된 남자의 이야기이다. 두 남녀가 만나 알콩달콩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는 소소한 재미를 넘어 오늘날 청춘들의 사랑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작품은 저자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형식화한 탓에 작중 인물의 심리를 리얼하게 보는 듯한 착각을 준다. 두 주인공이 번갈아 가며 1인칭 화자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구성도 이채롭다. 또한 시인 특유의 담담하고 서정적인 문체는 단순한 로맨스 소설을 넘어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한편 최은별 작가는 전북대 불문과를 졸업했으며 '문예연구' 2017년 겨울호에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요일마다 다채로운 광주시민인문학 강좌

광주 시민인문학은 내달 4일까지 4주에 걸쳐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51기 정기 강좌를 개최한다.

정규강좌(오후 7시30분)는 인문학을 토대로 다양한 학문과 문화를 접해 보는 시간으로 월·화·목요일에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명혜영 교수(일문학)가 '요로 다케시의 '뇌와 마음'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화요일에는 위상복 전남대 명예교수(독일철학)가 '맑스의 '자본론'으로 철학하기'를 강의하고, 목요일에는 노영진 전남대 교수(영미철학)가 '몸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SEMI 강좌는 월·목·토요일(오후 2시)에 음악, 문학, 영화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각각 '소풍 음악',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 '역대 아카데미 특선'이 펼쳐진다.

토요일 특별강좌(오전 11시)는 일본 원서로 인문학 읽기 시간이 예정돼 있다. 명혜영 교수가 철학용어도감, 소설 등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 '광주 시민인문학'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10-4624-1201, 062-412-879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내 머리는 풀밭/ 매뚜기 뛰어 놓고/ 꽃도 피어 // 머리카라 감기지 마/ 매뚜기 달아나// 비 오면 그때 감을래// 머리카라 자르지마/ 매뚜기 배고파// 매뚜기 이사 가고/ 겨울바람 이사 오면/ 그때 자를래."('내 머리는 풀밭' 중)



무지개 세상에 왜 빨간색은 안 되나요?

김좌현 동시집 '비행기를 따라간 나비' 출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문학단체인 '한국문학평화포럼'(회장 이명환 작가)이 자신 있게 추천한 동시집이다.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할 때는 즐거운 놀이였어요. 어린 조카들과 보냈던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의 마음을 되찾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작품집에는 '지구를 먹은 날', '비행기를 따라간 나비', '배추가 심심해서', '상상치

료제', '별도 결성한다', '새가 된 할머니' 등 특유의 문학적 상상력과 어린다운 순수함이 결합된 주옥 같은 작품들이 담겨 있다.

김좌현 시인의 동시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순진성의 아이러니'이다. 어린 아이의 순진한 눈과 대립되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예측하지 못한 재미나 교훈을 준다. 데 모미가 있다.

TV현장중계 형식을 취하고 있는 동시

'무지개'는 천진난만한 아이와 사물을 내세워 사회적 발언을 하는 내용이다. '빨간색 금지령'은 우리사회 오랫동안 떠돌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망령임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시인인 임동화 한신대 교수는 해설에서 "타인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주류를 이루면서 그녀의 동시가 자연스럽게 대지적이고 이타적인 동시의 세계로 이행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좌현 시인은 2007년 '시경'에 동화, 2010년 '한국문학평화포럼'에 동시를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음악극 '호랑이 엄마를 돌려줘' 극본을 썼으며 동화책 '위험해, 쿵!'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주민 사랑방 된 '문화파출소 여수'

지난해 1월 개소한 '문화파출소 여수'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현재까지 45개의 교육 및 기획프로그램에 500여명의 수강생 등 총 18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동네를 주제로 기획한 교육프로그램 '동네프로젝트- 동네밴드, 동네네치, 동네그림, 동네인문', 지역자원을 교육재료로 활용한 '여수담은 천연비누' 등 지역 특화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범죄피해자 대상 치유프로그램인 '마음치유 북치움'을 운영

하며 거둔 성과다. 또한 여수경찰서와 연계한 기획행사 '함께하는 문화파출소',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 프로그램인 '내 손으로 만드는 순면패드' 등을 통해 지역 내 범죄피해자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문화를 통한 치유의 공간으로도 자리 잡았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이 치안센터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문화파출소 여수'는 전국 9개의 문화파출소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유일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